고용노동부 | 보도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9.(월) 배포 즉시

제지업종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9.(월) 한겨레, “추락사 8개월째, 압수수색도 안한 대전노동청”

2. 설명 내용

□ 우리부(대전지방고용노동청)는 **아세아제지(주)세종공장**에 대해 **’22.11월** 감독을 실시하여 **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4건**을 적발, **사법처리 및 시정조치**하였고,

○ **’26.3월 노동자 개구부 추락 사망 사고** 이후, **‘26.4월 감독을 실시**하여 **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, 울타리, 덮개 미설치** 등 29건을 적발, 21건은 범죄인지, 8건은 과태료 1억3천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**하였음.

○ 아울러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**’26.3~5월 대전·세종·충청 지역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753개소**에 대해 **자체점검을 실시**토록 지도하고, **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8개소**에 대한 **집중 점검**을 통해 **위반사항 80건**을 적발, **시정지시 및 과태료** 부과 조치하였음.

□ 향후, 제지업종을 비롯하여 **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**가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**감독과 개선 이행 여부 확인**을 통해 **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**할 계획임.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숭훈 (044-202-891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